

안 그래픽스 인쇄 . 싸인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 집 . 사업체 . 총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AAA Insurance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3483 Satellite Blvd Ste.310 S Duluth, GA 30096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 원 치과 김세희 소화데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Brighter Smiles 잔스크릭 치과 광상범 라파엘 이수산나 470-719-0213 www.brsmilesdmd.com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미래의 대비와 준비 / 학자금 상속 / 은퇴 / 생명보험 / IRA 장기요양보험 / 오바마의료보험 오선주 데레사 보험 714-579-5422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State Farm 자동차, 주택, 생명, 비즈니스, 건물, 종업원 상해 보험 송규형 루카 770-361-5655 5224 Buford Hwy NE Ste B Doraville, GA 30340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CEO/Broker 마크 우 공인부동산 Million Realtors INC 770-885-3276 주택전문/부동산 투자25년 경험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명품중식 레스토랑 만 천 흥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벌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오민환 파비아노 10820 Abbotts Bridge Rd, #240	Wendot! 로사리오 평생대학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정경다리 회원 모집합니다. (차세대 임원 및 봉사인원 필요합니다) •강사문의 환영합니다. 온전 베네딕토 404-308-032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PG Paints LLC 하우스(IN/OUT) & 오피스 페인트 박효만 스테파노 470-495-4016 pcpaintsllc@gmail.com			
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서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The Shine 스킨케어 & 반영구 눈썹, 입술 강헬레나 404-988-3800 0704helenakang			
최지남 요셉 프로 407-963-3132 •튼튼한 기초 · 정확한 스윙 · 정교한 숏게임 프로 지망생/ College 골프팀 목표 학생 •초급반 · 중급반 · 고급반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복음 환호송 마르코 10,35-45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순교자 주보



에블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4년 10월 20일

NO.2274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부주임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이홍철 세바스티아노 Email: hongchul2@gmail.com Tel: 706.442.0359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그리스도> 채색삼화, 파에르폰트 몰간 도서관, 뉴욕 미국

연중 제 29주일

성 가	입당: 48 봉헌: 219/216 성체: 151/153 파견: 63
제1독서	이사야서 53,10-11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리라.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 4,14-16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좌로 나아갑시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
복음	마르코 10,35-45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00am
교중미사	10:00am
영어미사	11:45a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오 29,16-20)

하늘에서

배영길 베드로 신부

이 파아란 하늘이
내 것입니다.

저 넓은 하늘이
내 것입니다.

하늘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님과 함께.

나도 커서
님처럼 이렇게.



이사야가 그려 보인 마지막 날의 모습,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거기에서 주님의 길을 배우며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전쟁 기술은 배울 필요도 없고, 칼과 창은 쳐서 농기구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티나의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시대의 그곳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니다. 아하즈 임금 때는 아람과 북 왕국 이스라엘이 남 왕국 유다로 쳐들어왔고,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히즈키야 임금 때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니다. 거의 모든 성읍이 정복되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으나 다른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겪었기에 오히려 전쟁 없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만 닮았을 일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유다인들을 몰아냈고, 중세에는 십자군 전쟁도 있었으며, 지금은 지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유다인들보다 덜 호전적이어서 그들을 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유다인들과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근본적으로는 같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인데 그렇게 살아 왔습니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날은 이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를 위한 날이지만, 오늘의 독서를 들으면서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가 참으로 '복음화'되어 주님의 길을 배우고 서로 맞서 칼을 쳐들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2024. 10. 27
연중 제30주일 복음

마르코 10,46-52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복음 이해

†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큰소리로 간청하는 눈먼 거지(부정한사람, 죄인) 바르티매오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감을 나타냅니다. ‘눈이 멀다’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매를 넘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신앙인은 바르티매오의 외침 안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의 갈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간절함은 결핍되고 우리의 신앙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더 나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묵상의 길

1.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바르티매오의 믿음을 보며,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완고함, 이기심, 하느님을 섬기는 데 게으르고 열의가 없는, 두려움 등)
2. (내가 또는 이웃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빛을 밝혀 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Mk 10:46-52

As Jesus was leaving Jericho with his disciples and a sizable crowd, Bartimaeus, a blind man, the son of Timaeus, sat by the roadside begging. On hearing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cry out and say, "Jesus, son of David, have pity on me." And many rebuked him, telling him to be silent. But he kept calling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pity on me."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he blind man, saying to him, "Take courage; get up, Jesus is calling you." He threw aside his cloak, sprang up, and came to Jesus. Jesus said to him in reply,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 blind man replied to him, "Master, I want to see." Jesus told him, "Go your way; your faith has sav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him on the way.

Key Points

† The blind beggar Bartimaeus, considered unclean and a sinner, cried out loudly for Jesus' mercy, even as many rebuked him. Yet, despite the opposition, he persisted and approached Jesus, demonstrating his determination to seek Him no matter the obstacles. Being 'blind' signifies more than just physical blindness—it represents a lack of vision to see the life that Jesus offers and an unwillingness to listen to His word. As people of faith, we should remember Bartimaeus's cry and his deep longing for Jesus. When we allow our eyes and hearts to be distracted by things other than Jesus, our longing for Him diminishes, and our faith fails to bear fruit, preventing us from experiencing a renewed life.

Reflection

1. Reflecting on Bartimaeus's desperate faith in seeking his salvation, let us examine our own faith. What obstacles are preventing you from drawing closer to Jesus? (e.g., stubbornness, selfishness, laziness or lack of zeal in serving God, fear, etc.)
2. Share an experience where you (or someone you know) brought light to a situation of darkness.

성지에서 보내 온 한 사제의 편지로 떠나는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순례단장 김용준 로마노

저는 200년 된 교우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앙 속에서 교리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일상 그 자체가 거룩함이었지요. 그런데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배출된 공소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묵주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잠을 자는 시대가 됐습니다. 박해 시대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일회성으로 순례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걸어서 어떻게 순교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을 위해 걸었던 이 순례길을 500번은 걸어볼 계획입니다. 걸을수록 길이 편안해지고, 분심이 덜 들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익숙해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걸을수록 순교자들의 숨소리와 거친 신음 소리가 느껴집니다. 문득문득 순교자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500번쯤 걸은 후에는 나도 순교자들의 모습을 닮은 거룩함이 묻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걸고자 합니다.

죄수들을 입교시켜 함께 참수당하신 박해시대의 한 순교 성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입교시키기 어려운 때에 그 포악한 죄수들을 화개시키기 위해 얼마나 겸손하고 거룩해야 했는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죄수들을 입교시키고자 했던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러 오며 겪는 일상의 고민과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우리 일상의 불평 불만을 그분의 고통에 견줄 수 있을까요? 성지는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좋은 경치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박해시대 순교 성지 감옥에 갇힌 사학 죄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밥 대신 던져주는 벼단을 받았습다. 그 벼단으로 새끼를 꼬아 겨우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었지요. 천주학을 하는 사람들은 갈과 죽새를 차고 있어 새끼를 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찌는듯한 여름의 더위와 밤새 싸우며 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주리 틀림을 당해야 하는 걱정보다도 감옥에 갇힌 이를 보러 숨어와서 숨죽여 우는 가족들을 보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고문보다 더 큰 배교의 길은 어머니의 울부짖음과 자녀들의 애원하기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만을 되뇌며 형장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하느님의 뜻이려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한 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원망하는 마음 없이 하느님께 의탁했을 것입니다.

<출처:가톨릭평화신문>



하비에르 기념성당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한국 일본 성지순례단

2024. 10월 반 모임 현황

문의: 김현숙 아델라 408-835-7852

구역	반	날 짜	시 간	장 소
알파레타	1	14(월)	7:00pm	
	2	13(일)	4:00pm	강규상
	3	27(일)	11:30am	본당
	4	19(목)	8:00pm	김기영
애틀랜타	1	6(일)	12:00pm	#114
	2	20(일)	11:30am	#114
	3	26(토)	2:30pm	말씀방
커밍	1	19(토)	7pm	천병호
	2	27(일)	6pm	임혜수
	3	12(일)	7pm	최윤적
돌루스	1			
	2	20(일)	11:45am	#302
	3	12(토)	6:00pm	김옥경
던우디	1			
	2	27(일)	2:30pm	말씀방
존스크릭	1	4(금)		구역미사
	2	4(금)		구역미사
	3	19(토)	7:30pm	
	4	20(일)	2:00pm	캘리크릭 공원
Heart Side		17(목)	5:00pm	

구역	반	날 짜	시 간	장 소
North East	로렌스빌	13(화)	미사후	본당
	앨번	26(토)	11:00am	#304
	뷰포드	4(금)	3:00pm	성진희
마리에타	1	18(금)	6:00pm	문명식
	2	11(금)	7:30pm	고창민
	3	11(금)	8:00pm	김연복
	4	12(토)	7:00pm	이혜원
피치 라즈웰	1	20(일)	12:00pm	#109
	2	27(일)		미정
	3	9(주)	7:00pm	김기범
	4	16(목)	6pm	본당
스와니	1			
	2	16(수)	7:00pm	고영호
	3	19(토)	5:00pm	김문주
뉴난	1	14(월)	10:00am	이윤경
	2	18(금)	10:00am	김유나
S애틀랜타		9(주)	11:00am	변해숙
차타누가		19(일)	6:00pm	김은영

예비자 입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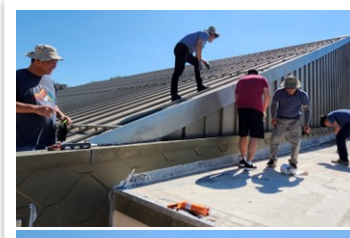
예비자 교리반



10/15(화) 낮 12시 미사
몽고메리 성 김대건 성당 주임 박동순
요셉 신부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꾸리아 월례회의



토요 청년 미사 저녁 봉사



지붕 보수 공사 봉사
피약별에 지붕 보수 공사 봉사해
주신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치회 점심 판매



새신자 환영합니다.



故 김봉자 마리아님 연도
지난 10월 11일(금) 연도에 참석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LC 전 신자 대상 일일 피정

